

제 22회

수선포럼

일시: 2024. 4. 18(목) 11:30~13:00

장소: 사회과학연구원 Conference Room (수선관 901)

사회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제 22회 ‘수선포럼’에 초대합니다!

‘수선포럼’은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를 교류하고
강건한 학문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금번 포럼에서는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 중인 양준석 교수님을
연자로 모시고, ‘무역 관계의 무기화와 대중 여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수선포럼은 신진연구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2024년 1학기 수선포럼은 ‘공동체와 사회과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중견 및
신진연구자들을 두루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4월 18일 수선관에서 뵙겠습니다.

사회과학연구원장 최훈석 배상

- 발표: 양준석 (정치외교학과)
- 제목: 무역 관계의 무기화와 대중 여론 (뒷 장에 초록있습니다.)

※ 금번 포럼은 주최측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함께하는 브라운 백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사회과학연구원 | 용정순 박사 (thfqldkf@skku.edu / 010-2761-3586)
사회과학행정실 | 박찬환 책임 (hwan830@skku.edu / 02-760-0935)

무역 관계의 무기화와 대중 여론 (Weaponized Trade and Public Opinion)

최근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무역 관계의 무기화 (weaponization of trade relations)’이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위안부 문제를 이유로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요 반도체 화학물질의 수출 제한과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되어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들은 왜 경제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무역 분쟁에 휘말리는가? 미국 무역전쟁에서 보여지듯이, 왜 무역 분쟁들은 쉽게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하는가? 나아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무역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까? 본 발표는 ‘대중 여론’을 중심으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표는 무기화된 무역과 대중 여론의 관계를 조망하는 두 가지 연구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청중 비용 이론 (audience cost theory)’을 바탕으로, 대중들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일련의 분쟁 심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선택이 대중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다. 두 번째 연구는, 한중일 3개국 온라인 설문 실험을 통하여, 어떠한 조건 하에 대중들의 무역의 무기화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지지 여부가 줄어들 수 있는지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의 경험적 결과가 국제정치경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